

古典期 아테네 비극에 나타난 여주인공들

문 해 경*

< 차 례 >

- I. 머리말
- II.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
- III. 에우리피데스 비극의 여주인공들
 - 1. 에우리피데스는 여성혐오자인가?
 - 2. 『메디아』
 - 3. 『히폴리투스』의 페드라
 - 4. 『엘렉트라』
- IV. 맺음말

I. 머리말

기원전 5세기 아테네는 정치, 경제 및 문화면에서 다른 그리스의 폴리스 보다 절정을 맞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정체의 발전 속에서 아테네 여성은 사회적 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즉 폴리스라는 사회구조 속에서 공적 생활에 여성이 제외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당시 아테네 여성은 법적, 경제적으로 남성보다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당시 아테네 사회의 관습과 법률이 여성에게 불리한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아테네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자들은 여성도 충분히 발전된 하나의 인격체로서 남성과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의 본성과 근본을 갖고 있어 자유롭게 행동하며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낙관주의자들은 문학작품의 여주인공들에서 여성들의 두드러진 위치를 인식하였던 것이다.¹⁾ 그러나 이러한 관점의 연구는 사실상 문학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강사

1) 낙관주의의 대표적 작가인 고프(Gomme, A. W.)는 기원전 5세기 아테네 비극과 도회화 그리고 조각을 통해 여성의 현저한 위치를 주의 깊게 연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작품 속의 여성과 실제 삶 속에서의 여성들간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史的인 연구로써는 한계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비극과 희극이 신화와 전설을 바탕으로 하여 실제 생활의 모습을 찾아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극은 국가적 행사인 디오니소스제로부터 그 출발점을 삼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²⁾ 국가적 축제라는 점으로 미루어 보건대 비극은 일부 지식인층들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층을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비극 시인은 시대의 사상을 무대에 재현하는 동시에 비극을 통해 시민들의 정신적 교도자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던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³⁾ 물론 문학작품은 허구이긴 하지만, 당대의 삶의 한 표현으로써 당시의 생활과 사고의 양식들이 반영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작가의 이념이나 사상의 대변물로 볼 수 있는

비극에서 여성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집밖 출입이 가능하였고 공공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점을 지적하면서 아테네 여성들의 생활이 사회와 격리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다.(Gomme, A. W. "The Position of Women in Athens in the Fifth and Fourth Centuries B. C.," *The Classical Philology*, Vol. 20, 1925, reprinted in his *Essays in Greek history and Literature*, Oxford, 1937, p. 91, pp. 98-99.) 또한 고프의 추종자 중의 한 사람인 키토(Kitto, H. D. F.)는 5세기 아테네의 채색 도기에서 아내를 존중하는 모습의 문양과 비극 작품에서 빛나는 여주인공들의 활기차고 진취적이며 지적인 성격으로 보아 아테네 여성들이 실제로는 자유롭고 적극적인 생활을 한 것으로 보았다.(Kitto, *The Greek*, Penguin Books, 1991, p. 222, p.228, 김진경譯, 『그리스 문화사』, 탐구당, 1984, p. 347, p. 357.) 뿐만 아니라 리히터(Richter, D. C.)도 아테네 여성이 자유롭고 위엄있는 지위를 도회화, 문학작품의 증거들을 통해 분석하였다.(Richter, D. C., "The Position of women, in Athens", *The Classical Journal*, Vol. 67, 1971, p. 5.) 이러한 시각은 셀트만(Seltman, C.)의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문학작품과 도자기 문양을 통해 아테네 여성의 지위가 격리되고 무시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다.(Seltman, C., *Women in Antiquity*, New York, 1962, pp. 103-107.) 더 나아가 최근에 아테네 여성의 삶에 대해 다방면으로 고찰한 포메로이(Pomeroy, S. B.)와 험프리스(Humphreys, S. C.)에 의해 더욱 진전되었다. 이들은 아테네 여성의 역할을 정확히 파악하는 방법으로써 아테네 사회와 문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다. 즉 기원전 5세기 비극의 여주인공들이 남성에게 저항하거나 남성 대신으로 활동한 점을 지적하면서 문학작품 또한 아테네 여성의 지위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자료라고 규정하였다. (Pomeroy, S. B., *Goddesses, Whores, Wives, and Slaves*, New York, 1975, pp. 93-97 ; Humphreys, S. C., *The Family, Women and Death*, Routledge, 1983, pp. 35-62.)

2) 그리스 극은 酒神 디오니소스(Dionysos)를 모시는 제사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이 제사는 일년에 春, 冬 두번에 걸쳐 올려졌다. 春季에 새 술통을 따는 축제는 디오니소스의 찬미가로 일관되어 여기에서 불린 합창이 비극으로 발전하였으며, 희극은 초겨울에 첫 포도주를 잔 다음의 축하 행렬에서 불린 합창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P.W. Harsh, *A Handbook of Classical Drama*, Stanford Univ. Press, 1944, p.4.)

3) 김진경, 『그리스 비극과 민주정치』, 일조각, 1991, p. 178.

비극을 통해 그리스 여성들의 생활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렇다면 남성중심적 사회 속에서 비극 작가들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실제 생활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강인하고 저항적인 여성을 그렸을까?

본고에서는 당시 사상과 사회적 분위기를 대변하는 비극 속의 여주인공들의 -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 Antigone』, 에우리피데스의 『메디아 Medea』, 『히폴리투스 Hippolytus』의 페드라(Phedra), 『엘렉트라 Electra』 - 행위를 통해 비극 작가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 인지를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II.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

기원전 441년에 쓰여진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는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여성으로 등장한다. 이 작품은 크레온과 안티고네의 대립이 주된 골격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종교적 의무와 국가의 합법적 권위에 대한 복종 간의 충돌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안티고네』는 기구한 운명을 지닌 오이디푸스의 딸인 안티고네가 국가에서 금지한 오빠 폴리네이케스의 장례를 치르려고 동생 이스메네에게 도움을 청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이는 테바이의 왕 크레온이 조국을 위하여 전사한 폴리네이케스의 형인 에테오클레스는 정중히 장례를 지내주지만 조국에 반기를 든 폴리네이케스의 시체는 들판에 내버려 두어 누구든지 매장해 주어서는 안 된다는 포고를 내렸기 때문이다. 즉 장례를 지내 준 사람은 엄벌에 처해 사형에 처하도록 명령을 내렸던 것이다.⁴⁾ 크레온의 명령은 국내에서 반역자의 무덤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그런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극형에 처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국가의 질서를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도 용납할 수 없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더 나아가 국가의 규범과 법률이 혈연관계보다 더 우월하고 권위에 대한 복종이 자연법에 대해 복종하는 것보다 더 우월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가치는 국가 전체 이익을 위해서

4) *Antigone*, 190-208.

희생시킬 수 있는 타협과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티고네는 크레온의 명령을 거스리고 반란을 일으킨 폴뤼네이케스의 시체를 매장할 것을 결심한다. 다음 대사에서 국왕의 명령을 어기고 반역자의 시체를 매장한다면 죽음을 당하리라는 것을 알고도 안티고네는 폴뤼네이케스의 시체를 매장하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크레온 외숙부님께서는 오빠들 중에 한 사람은 정중하게 장례를 치르도록 하시면서 다른 한사람은 그렇게 못하게 하고 있다. …… 그 분은 이일을 가볍게 여기시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 조금이라도 이것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사람들 앞에서 돌로 때려 죽인다고 하였다. …… 내 손으로 폴뤼네이케스 오빠 장례를 치르겠다. 그 일로 해서 내가 죽는다면 얼마나 좋으랴. 이 고귀한 죄 때문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 분과 정답게 함께 죽을 것이다.⁵⁾

안티고네의 이러한 결심은 죽은 자에게 무덤을 만들어 주는 것은 신이 내린 불문율로서 인간의 명령보다 우선이라는 생각하에 행해진 것이다. 즉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절대적인 신성불가침인 개인적인 가치와 권리를 중요시여겼던 것이다. 따라서 안티고네는 폴뤼네이케스의 매장이 도덕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가 무덤의 예식을 갖는 것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로 보았던 것이다. 결국 크레온의 장례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안티고네는 폴뤼네이케스를 매장하였다. 폴뤼네이케스 시체가 누군가에 의해 몰래 매장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크레온은 크게 노하여 그 범인을 찾아오라고 명령하였다. 다음대사에서 신의 법칙을 지키고자 하는 안티고네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그 법을 나에게 내린 것은 제우스 신이 아니었다. 또한 정의의 신도 그런 법을 정해 놓지 않았다. . . . 크레온 왕의 법률이 확고한 하늘의 법을 넘어설 수 있을 만큼 강한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늘의 법은 어제 오늘 생긴 것이 아니고 불멸한 것이며, 그 시작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⁶⁾

5) *Antigone*, 21-40, 70-75.

6) *Antigone*, 451- 460.

이와 같은 언급은 안티고네가 국가에서 공포된 법령은 위배할 수 있어도 자연적 질서는 위배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국왕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안티고네는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혈족인 “내 어머니의 아들”인 폴뤼네이케스가 매장당하지 못한 것은 혈족에 대한 수치라는 윤리관으로써 “일가 친척을 존경하기 위하여” 폴리스의 시민적 윤리관에 대항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죽음을 각오한 안티고네는 크레온 왕의 칙령을 무시하고 그녀의 오빠 폴뤼네이케스를 매장하였던 것이다. 이는 남성 통치에 대한 가족의 혈연관계에 도전받지 않으려고 한 안티고네의 공적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즉 개인의 가치가 국가의 이익에 희생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이는 또한 아테네인들의 조상 숭배의식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다. 안티고네의 이러한 행동은 확립된 관습에 반대함으로써 자연법을 우선으로 여겼던 것이다. 결국 그녀는 가족의 혈연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겼으며 가족의 가치를 파괴하는 국가적 관습을 거부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안티고네의 태도는 크레온의 합리주의 국가라는 남성의 이성에 대한 여성의 반항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안티고네의 크레온에 대한 저항은 남성 위주의 폴리스에 대한 반항이자 폴리스 시민 윤리에 대한 반항이다. 크레온은 그의 정치적 권위와 남성적 권위를 동일시했으므로 안티고네가 그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과 자기 이미지에 도전한 것은 폴리스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오이코스의 수호자이며 폴리스의 수호자인 크레온은 남성의 결단력이 없어서 여성이 지배적이거나 도전적이 되면 오이코스는 물론이거니와 폴리스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안티고네에 대하여 사형 선고를 내리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다.⁷⁾

결국 안티고네는 가족과 자연법의 가치를 존중하여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용감성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안티고네가 사랑, 열정, 감정적인 면을 소유한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질서에 대항하는 남성적인 모습으로 그려졌던 것이다. 따라서 소포클레스의

7) 백경옥, “소포클레스 비극의 여주인공들”, 정만득 교수 정년기념 논총, 경북대, 1998, pp. 11-13.

『안티고네』는 여성과 남성간의 충돌을 나타내는 동시에 자연법과 국가법 간의 충돌로 볼 수 있다.

Ⅲ.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의 여주인공들

1. 에우리피데스는 여성혐오자인가?

에우리피데스는 이오니아의 자연 철학에 관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소피스트 철학자들과 사상적 교류를 갖었다.⁸⁾ 이처럼 당시의 진보적 사상가들과의 교류는 에우리피데스의 사상과 이념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에우리피데스는 전통적인 인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상을 추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우리피데스는 동료인 아리스토파네스와 아리스토파네스의 영향을 받은 고대 전기작가들로부터 여성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갖고 있다고 평가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에우리피데스의 여성 혐오는 오늘날까지 아무런 반론 없이 대부분의 학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포메로이는 에우리피데스의 여주인공들이 강하고 진취적이며 성공적인 여성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혐오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⁹⁾ 그 이유에 관해 그는 2세기 중반의 전기작가인 겔리우스(Gellius)와 동 시대 후반의 전기작가인 아테나에우스(Athenaeus)가 에우리피데스에 관해 쓴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¹⁰⁾ 즉 전자는 에우리피데스가 여성에 관해 반감을 갖고 있다고 한 반면 후자는 에우리피데스가 여성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는 점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같은 시기의 전기작가들의 기록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어느 한 쪽이 에우리피데스에 관해 편견을 갖고 있는

8) 에우리피데스는 Anaxagoras, Prodicus, Protagoras와 같은 철학자들 강의에 참석했다. 또한 소크라테스는 좀처럼 비극 상연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에우리피데스의 작품이 상연될 때는 반드시 참석했다고 전한다.(Bates, W. N., *Euripides : A Student of Human Nature*, N.Y., 1930, pp. 7-9 ; Murray, G., *Euripides and His Age*, Oxford, 1955, pp. 30-31)

9) Pomeroy, op. cit., p. 107.

10) Ibid., p. 105 ; 에우리피데스가 여성에 대해 반감을 갖게 된 이유에 관해 겔리우스는 에우리피데스가 성격상 결함이 있으며 아내가 두명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에서 에우리피데스를 여성 혐오자로 여긴 구절과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에서 여성의 운명에 관해 동정심을 묘사함으로써 일부 학자들에 의해 여성 혐오자로 오해를 받았던 구절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아리스토파네스의 『테스모포리아 제전 100』에서 에우리피데스로 분장한 배우가 나이가 지긋한 중년 남자에게 다음과 같이 하소연하고 있다.

나는(에우리피데스) 두렵다. 왜냐하면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나에게 대해 음모를 꾸미는 것 같다. 이는 여성들이 내 비극에서 그들을 비방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테스모포리아 제전에서 그들은 나를 제거하기 위한 논의를 할 예정인 것이다.

또한 『테스모포리아 제전 385』에서 한 그리스 여인이 다음과 같이 에우리피데스를 비난하고 있다.

이제 또 어떤 비방의 진흙을 가지고 저 자(에우리피데스)는 우리를 모독할 것인지? 도대체 언제 저 욕설을 거둘 것인지? 한마디로, 구경꾼과 비극 그리고 코러스가 있는 곳에서는 우리는 늘 후미진 곳만 찾아다니는 섹광이라 불리고 술이나 좋아하고 칠칠치 못하며 수다스럽다고 한다. 그래서 남자들은 극장에서 집으로 돌아 오면 수상쩍은 눈총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근처에 정부라도 숨겨 두지 않았나 두리번 거린다. 그는 (에우리피데스) 남자들의 머리 속에 우리 여자들에 대한 의심만을 심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집에서 화환이라도 하나 만들면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라 의심하고, 만일 실수로 그릇이라도 하나 떨어뜨리면 남편은 곧 달려 들어, 그 깨뜨린 술잔은 누구 것이냐, 코린트에서 온 남자 손님을 숨겨 두지 않았느냐고 다그칠 것이 분명하다.

이와 같이 아리스토파네스는 에우리피데스가 여성을 섹광, 술을 좋아하며 수다스러운 면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에우리피데스를 여성혐오자로 몰아붙이고 있다. 아리스토파네스의 작품 속에서 에우리피데스를 공격하는 이유에 관해 필자는 당시 진보적 사상을 받아들인 에우리피데스가 인습을 타파하려는 시도를 아리스토파네스가 못마땅하게 여겨 시기와 질투로써 대응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싶다.

이는 아리스토파네스의 『개구리 840』에서 에우리피데스의 어머니를 채소 판매자라고 묘사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도 명백히 뒷받침된다. 또한 당시 아테네인들의 이데올로기가 노동을 천한 것으로 여겨서 노예나 하는 것으로 인식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아리스토파네스는 에우리피데스가 천한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의 어머니, 즉 여성에 대한 콤플렉스를 비극을 통해 여성 혐오로 표출한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더욱이 다음과 같은 에우리피데스의 『메디아』와 『히폴리투스』에서 에우리피데스가 여성의 운명에 관해 동정심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로 보아 에우리피데스를 여성 혐오자로 이해할 수도 있다.

『메디아 230-51』에 의하면

슬프도다! 영혼과 생명을 지닌 자들 중
우리 여성들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존재일 것이다!
우리들은 지참금으로 남편을 사야만 한다.
그리고 더욱 참을 수 없는 것은 바로 그때부터 우리들의 몸은
남편의 소유가 된다는 점이다. 또 그는 어떤 남자일까,
마음이 좋을까 아니면 나쁠까, 이 점이 가장 두려운 데
왜냐하면 이혼이란 여자에게 끝까지 불명예로 남을 것이므로,
그러나 남편으로 정해진 사람을 거부할 도리는 없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관습과 익숙치 못한 예의 범절에 적응하면서 어
떤 사람인지 추측이나 하고 있을 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으므로,
다행히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져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 사랑하
며 살 수 있게 된다면, 진정 그때야말로 우리 삶은 부러움을 살 만한
것이 된다.
그렇지 못하다면, 차라리 죽느니만 못하지!
남자는 집안이 편안치 못하면 밖에서
그의 영혼을 진정시켜줄 무엇을 구할 수 있다.
친구 곁에서, 동료 남자들 곁에서
우리는 고독한 방을 지키고 앉아 있어야만 한다.
입버릇처럼 남자들은 그들이 군대에 나가 있는 동안
여자는 아무 위협없이 집에서 편안하게 살림만 한다고 한다.
허튼소리, 나는 한번 산욕에 시달리는 것보다
오히려 세번 전쟁에 나가길 바란다.

또한 『히폴리투스 616-18』에 의하면

아, 제우스여, 그대는 어찌하여 태양 아래 여자라는
 위선을 일삼는 종족을 태어나게 했는가?
 그 이유가 종족의 번식에 있다면 여자보다는 다른 어떤 것이 있었을
 걸, …… 확실히 여성이란 저주스럽다는 것은 말을 낳아 길러낸 아
 버지가 때가 되면 출가 때 쓰일 지참금을 마련하려 찢절매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처럼 동료 작가인 아리스토파네스의 작품을 통한 야유와 공격으
 로, 그리고 에우리피데스의 일부 구절에서 보이는 여성의 운명에 대해
 수동적이고 동정심으로 묘사한 점으로 인해 에우리피데스를 여성 혐
 오자로 여길 수도 있다. 더욱이 에우리피데스를 여성 혐오자로 보는
 학자들은 에우리피데스가 당시 정당한 방법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었던 여성에 대해 연민의 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의 성격을
 강하게 묘사하였다고 지적한다.¹¹⁾ 그러나 에우리피데스는 그의 비극
 속의 여성들의 성격을 남성에 저항하고 사회적 관습에 도전하는 모습
 으로 묘사하고자 하였다. 요컨대 에우리피데스의 여주인공은 폴리스와
 오이코스의 관습 간의 불일치를 폭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권리
 를 보호하기 위한 방책으로써 여성들의 성격에 관해 적개심 및 복수
 심을 갖도록 묘사하였던 것이다.¹²⁾ 즉 잠재해 있던 여성의 열정적 본
 능이 드라마에서 남성에 대한 저항으로 표출하였던 것이다. 또한 에우
 리피데스의 비극 속에는 여성이 고귀함, 용감성, 강렬한 사랑, 증오, 분
 노, 복수와 같은 인간내면의 원초적인 감정을 갖고 있음을 묘사하려고
 하였다. 이런 점은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감정을 갖고 있는 인간

11) 저스트는 에우리피데스의 여성 인물이 열정, 질투, 복수심을 갖는 범죄의 가해자로 묘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활함과 간계를 꾸미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그는 에우리피데스가 이와 같이 여성의 행동을 묘사하는 것은 당시 여성의 지위가 불안정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즉 복수심이 있는 광포한 행동은 사회적 무기력으로부터 발생하며, 술수와 간계는 여성의 유일한 무기로, 또한 질투심과 증오심은 정당화된 두려움의 표현으로 보았던 것이다.(Just, R., *Women in Athenian Law and Life*, Routledge, 1989, p. 194.) 특히 저스트는 에우리피데스가 『메디아』에서 남편의 배반으로 메디아의 복수를 잔인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런 점은 에우리피데스가 여성에 대해 혐오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2) March, J., "Euripides the Misogynist?," Edited by Powell, A., *Euripides, Women, and Sexuality*, Routledge, 1990, p. 32 ; 키토는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에서 남자가 고민에 빠져 있을 때에 어떤 해결책을 찾는 총명한 여주인공을 발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Kitto, op. cit., p. 228, 김진경 譯, 『그리스 문화사』, p. 357.)

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런 모습들은 미디어, 파이드라, 엘렉트라와 같은 여주인공들의 행동과 말에서 드러난다.

그렇다면 에우리피데스는 비극 속의 여주인공들을 통해 어떤 여성상을 나타내고자 하였는가? 또한 과연 에우리피데스 비극에 나타난 여주인공들의 성격이 진취적이고 용감하며 남성에게 저항하는 모습이 사회적 규범과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에 관해 다음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2. 『메디아』

기원전 431년에 상연된 이 극은 사회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에우리피데스는 메디아를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대담무쌍하고 영웅적 성격을 지닌 여성으로 등장시켰다. 이 극이 시작되기 전 줄거리의 대강 다음과 같다.

야손(Jason)의 삼촌 펠리아스(Pelias)는 야손에게 콜기스(Colchis)의 왕 아이에테스(Aeetes)가 간직하고 있는 황금 양모피를 가져오도록 명령하였다. 야손이 아르고(Argos) 船을 이끌고 그 황금 양모피를 탈취하려 콜기스에 원정했으나 실패하였으나, 이때 야손과 사랑에 빠진 아이에테스의 딸인 메디아가 야손을 도와 황금 양모피를 탈취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아르고 船을 타고 메디아의 고향을 도망쳐 나오는데, 이때 메디아는 아버지의 추격을 지연시키기 위해 자신의 남동생을 죽여 갈기갈기 찢어서 간격을 두어 바다에 던졌다. 뒤쫓아 오던 아이에테스는 그 시체를 줍느라 그들이 탄 아르고 船을 놓쳐버린다. 그들이 야손의 고향 이올코스(Iolcus)에 돌아 왔을 때, 그의 삼촌 펠리아스는 야손을 숙여 그의 권리를 빼앗았다. 이에 분개한 메디아는 펠리아스의 딸들을 피어 펠리아스를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야손과 메디아는 그 도시로부터 추방되었다. 그리하여 메디아와 야손은 코린도스(Corinth)에서 이방인 생활을 하게된 것이다.

무대의 배경은 코린도스에 있는 메디아의 집앞, 다음과 같은 유모의 걱정스러운 탄식의 말로 시작된다. “…… 서방님께서서는 우리 아씨와 아기들을 버리시고, 새장가를 들려고 한다. 이 고을의 왕이신 크레온의 따님을 배필로 맞아들이시려고 한다. 가없는 것은 메디아 아씨 …

...”¹³⁾ 이러한 유모의 탄식에는 사랑에 눈이 멀어 남동생을 죽이고 고국과 아버지를 저버리면서 까지 야손을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메디아를 헌신짝 버리고 새 장가 들려는 야손의 배신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위험을 무릅쓰고 남편의 뒤를 따라 낯설은 코린토스 땅에 와서 두 아이를 낳아 단란하게 살아왔는데 야손이 새로운 사회적 신분을 위해 배반을 하게 된 것이다.

코린토스왕의 공주와 결혼하려는 야손의 배반에 메디아는 처음에 어찌할 바를 몰라 절망감에 빠져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코린토스의 왕 크레온은 자기 딸에게 재앙이 미칠 것을 두려워 하여 메디아에게 당장 코린토스를 떠나라고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메디아, 그대에게 이 나라 바깥으로 추방을 명한다. 네 두 아이를 같이 데리고 나가야 한다. 한시도 지체 말고 거행하라.¹⁴⁾

그러나 이런 극한 상황에서 메디아는 절망감과 비탄속에 빠져있을 수만 없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메디아는 왕의 딸과 결혼하여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 자기를 저버린 남자에게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크레온왕에게 매달려 간곡하게 호소함으로써 추방을 다음날 아침까지 연기할 수 있었다.

두고 보아야겠지? 새로 결혼한 두사람에게도 앞으로 닥쳐올 시련이 있을 것이고, 그 집안 분들에게도 고난이 찾아 올 것이다.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무슨 뜻하는바 있어, 가슴에 품은 것 없이 크레온왕에게 아침을 떨 것같이 생각이 되는가? 말을 걸거나 달라붙어 사정을 할 것 같으나, 어렵도 없지. 세상에 바보 천지 같은 자. 나를 당장에 추방해 버렸으면 내 계획이 일체 수포로 돌아 갈 것을 오늘 하루의 여유를 주었거든. 이 하루 동안에 내 원수 셋, 왕과 딸 그리고 내 남편을 모조리 시체로 만들 작정으로 있는데, 어떻게 죽였으면 속이 시원할까. 죽이는 방법도 하도 많아서 어느 것을 택해야 하는지 정말 갈피를 잡지 못하겠군. …… 일을 꾸미는데 붙잡히기라도 한다면 나는 죽음을 당할 테지, 그들의 좋은 옷음거리 밖에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독약으로 해치우는 것이 상책이지.¹⁵⁾

13) *Medea*, 10 -20.

14) *Medea*, 270-72.

이상의 미디어의 독백에서 에우리피데스는 크레온 왕에게 복종하는 모습으로 미디어를 묘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현명하고 영리하게 대처해 나가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미디어의 복수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 행해졌다. 그녀의 복수의 시작은 독이 묻은 옷을 크레온 왕과 공주에게 보내 그들을 죽게 만들었으며, 또한 미디어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녀의 남편 야손에 대한 복수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미 결심이 되어 있다. 아이들을 내 손으로 없애고 빨리 이곳을 떠나는 것이다. 우물쭈물하다 내 자식의 목숨을 더 혹독한 남의 손에 어지개 해서는 안되지. 여차피 살아서 부지 할 수 없는 아이들의 목숨, 그 목숨이 없어질 바에야 이 어미의 손에 죽는 것이 낫지. 마음을 강철 같이 굳세게 먹어야 겠다. 무엇을 주저할 것인가. 아무리 무서워도 여차피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비겁자가 되어서는 안돼. …… 아이들을 죽이는 것이 남편을 괴롭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니까.¹⁶⁾

이처럼 자신의 아이들을 사랑하면서도 죽일 수 밖에 없는 운명적 상황에 처한 미디어의 고통은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모성애와 불타는 복수의 갈등속에서 그녀는 결국 자신의 아이들을 죽이기로 결심하였다. 야손이 왜 죽였느냐고 물었을 때, 미디어는 아이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당신에게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¹⁷⁾라는 대답으로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 아이들을 죽였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러한 방법의 복수는 몹시도 잔인하지만 미디어로서는 가장 효과적이고 통쾌한 복수였는지 모른다. 버림받은 아내로서 또한 최후의 수단으로 자식을 죽여야만하는 극단적이고 과격한 행동에서 한 여성이 겪는 고통과 아픔을 통해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을 숨김없이 드러내 보이고 있다.

에우리피데스는 이 극의 클라이막스를 미디어의 자식살해로 두었다. 자식 살해의 동기는 다양한 해석을 가져 올 수 있다. 그 하나는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 야손을 괴롭히는 제일 좋은 방법으로서, 두번째는 만일 미디어가 자신의 아이들을 죽이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의 손에 자

15) *Medea*, 363-387.

16) *Medea*, 1236-1245, 816.

17) *Medea*, 1399.

식들의 운명이 달렸기 때문이며, 세번째는 왕가의 피를 이은 동기간을 낳아 확실한 보호를 받아 보겠다는 이아손의 말에서 왕의 딸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으면 메디아의 자식은 서자가 되어 살아 있어도 자식들의 법률적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자식이라는 혈연 관계를 끊어버림으로서 야손의 오이코스(oikos, 가족)를 파괴시키기 위함이다. 오이코스의 파괴는 가계의 종말을 의미한다. 한 가계의 멸망은 개인적인 비극인 동시에 폴리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처럼 야손을 무자식 상태로 만든 동시에 크레온 왕의 대를 끊었다는 점은 - 공주를 살해함으로써 - 사회 전체에 대한 메디아의 저항으로 여겨 질 수 있다. 또한 이 점은 메디아와 야손 간의 감정적 투쟁으로 간주하는 심리학적 분석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필자는 감정적인 면보다는 오히려 오이코스과 폴리스 간의 대립으로 분석한 구조주의적인 면으로 해석하고 싶다. 왜냐하면 『메디아 547-67』에서 왕가의 피를 이은 동기간을 낳아 확실한 보호를 받아 보겠다는 야손의 말을 고려한다면 왕의 딸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으면 메디아의 자식은 서자가 되어 살아 있어도 자식들의 법률적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메디아 1236-40』에서 만일 메디아가 자신의 아이들을 죽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다른 사람의 손에 자식들의 운명이 달렸다는 구절과 일맥상통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결국 메디아는 사랑과 복수의 갈등 속에서 자식살해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야손을 파멸시켰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에우리피데스의 『메디아』는 사회성을 띠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에우리피데스는 『메디아』에서 여주인공인 메디아를 현명하고 영리한 여성으로 등장시켜 사회와 남성에 대해 투쟁하는 여성상을 보여 주려고 하였던 것이다.

한편 『메디아』에서 메디아와 야손 간의 투쟁을 사적인 오이코스 대공적인 폴리스 간의 사회구조 문제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사실상 에우리피데스의 『메디아』의 무대 배경은 아테네가 아니고 코린트이며 또한 메디아는 그리스 여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에우리피데스의 『메디아』는 폴리스와 오이코스 간의 대립으로 분석하는 구조주의적 방법에 합당치 않다고 반론을 제시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메디아 397』에서 메디아가 “우리집 화덕에 안치한 헤카타 신 . . .” 라고 언급한 점으로 보아 메디아의 집에서도 가내 종교 숭배 의식이 행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런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방인인 메디아의 소생으로서는 가내종교 숭배의식을 지속시킬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더 엄밀히 말한다면 이는 야손의 오이코스를 연속시킬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메디아』의 무대 배경이 코린트이지만 상연은 아테네에서 했다는 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리고 에우리피데스가 『메디아』를 상연한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필자는 이 점에 관해 진보적 사고를 갖고 있었던 에우리피데스가 이방인인 메디아를 통해 당시 사회와 제도 그리고 인습을 비판한 점을 지적하고 싶다. 또한 『메디아』가 상연된 시기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시작된 시기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즉 기원전 451/0년 페리클레스의 시민권 법률이 제정된 이래 계속 이 법이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로써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다. 요컨대 아테네인들이 특권이라고 여기는 점이 비아테네인들에게는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두 명의 아테네 시민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만이 시민이 될 수 있다”는 페리클레스의 시민권 법률로써 어머니가 아테네 시민 여성이 아닌 자는 시민권을 소유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사실상 비극이 많은 신화적 재료를 포함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역사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비극 작가의 사상이 당대의 사람들과 실제 사건들에 기초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비극이 당시에 통용된 가치와 규범 등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에우리피데스는 메디아를 통해 아테네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가족 생활의 본질에 해당하는 폴리스와 오이코스 간의 모순된 관계를 묘사하였던 것이다. 아테네인들은 개별적 오이코스를 존속시킬 의무가 있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개별적 오이코스의 존속은 국가의 이해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어찌보면 폴리스와 오이코스의 관계는 상호 제한된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오이코스과 폴리스의 이해 관계에 충돌이 야기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가정과 국가 간의 관계가 정반대적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보완적 관계를

갖는 것이 아테네인들의 이데올로기인 것이다.¹⁸⁾ 실제 오이코스과 폴리스의 관계는 서로 상이한 관계를 갖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상호 호혜적인 관계로 파악해야 한다. 그러므로 에우리피데스의 『메디아』 속에서 가정과 국가 간에 실질적으로 다양한 긴장이 야기됨을 지적할 수 있다. 결국 에우리피데스의 『메디아』는 여성과 국가 간의 관계, 그리고 여성과 가족 간의 구조적 관계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3. 『히폴리투스』의 페드라

기원전 428년에 상연된 『히폴리투스』에서 에우리피데스는 여주인공 페드라를 당시 사회의 인습적 가치관과 제어할 수 없는 강렬한 인간적 열정을 가진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테세우스(Theseus)왕의 후처인 페드라는 왕의 아들인 히폴리투스를 본 순간 사랑의 열병을 앓고 말았다. 사랑의 화살에 맞아 고통속에 나날을 보내던 페드라는 처음에 이성으로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다.

대체 사랑이란 무엇인가? 나에게서는 즐거움 보다는 오히려 쓰라림을 가져오는 것 같다. …… 사랑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상처를 받았을 때 나는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그 사랑을 견디려고 했었지. 처음에는 입을 다물고 불행을 숨겼지, 그래서 나는 이 미칠듯이 솟아 오르는 정열을 용기로써 억제하려 했고, 또 지혜로써 길들이려고 결심하기도 했지.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나의 열정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내가 할 일은 단지 죽는 길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¹⁹⁾

이러한 페드라의 애타는 마음을 테세우스왕의 아들인 히폴리투스가 알아차리지만 이에 대한 히폴리투스의 반응은 다음과 같은 말로서 페드라의 사랑을 단호히 거절하였다.

이런 끔직한 말을 들어야 하는가? 아 어찌면 이럴 수가 …… 난 그런 무리를 저주하고 있어. 부정한 자는 내 벗이 될 수 없어. …… 너는

18) Foley, Helen P., "The Conception of Women in Athenian Drama," In *Reflections of Women in Antiquity*, Gordon and Breach, 1981, pp. 154-156.

19) *Hippolytus*, 337-9, 393-402.

(유모) 나에게 와서 내 아버지의 잠자리를 더럽히라고 말하고 있어.²⁰⁾

히폴리투스로부터 무참히 거절당한 페드라는 죽음으로 상처받은 여인의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이 수치스러움을 어떻게 모면할 수 있을런지? 어느 신이, 아니 어떤 인간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지금 분노에 불타고 있으니 아버지 앞에서 나를 홍보겠지. 온 나라에 소문을 내겠지. 이렇게 되면 나는 얼굴을 들 수가 없겠지. ……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건 단 한가지 내가 죽는 다는 것 뿐이다. 아무리 해 봐야 구제될 길은 단지 그 방법 뿐이다. …… 씻을 수 없는 과거를 가슴에 안고 내 목숨을 건지려고 테세우스 앞에 비굴하게 나타나지 않겠다.²¹⁾

자기만 희생되면 그만이라고 여겨 일을 크게 확대시키고 싶지 않으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페드라는 히폴리투스의 치욕적인 모욕으로 인해 사랑의 감정이 증오로 바꿨다. 그리하여 페드라는 죽음의 길에 히폴리투스를 동반하기 위한 계략을 꾸몄다. 즉 테세우스왕 앞으로 편지를 남기고 자결하였던 것이다. 페드라의 저의를 알지 못한 테세우스왕은 히폴리투스에 대한 분노로 이성을 잃고 소리 지른다.

히폴리투스는 완력으로 내 침실을 침범하였지. 그리고 그 일로 인해 나의 아내는 죽었어. …… 페드라는 죽었어. 그런데도 내가 너를 살려 들성싶으나! 이 어리석은 녀석아, 그게 바로 너를 파멸로 이끄는 거야.²²⁾

이러한 테세우스의 분노에 대해 히폴리투스는 “나보다 순결한 사람은 없습니다. …… 제가 어떻게 그런 악행을 저지르겠습니까? 결코 아버지의 아내에 대해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²³⁾라고 결백을 주장하였지만 테세우스는 아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추방을 명하였다.²⁴⁾

20) *Hippolytus*, 601-3, 614-5, 651-2.

21) *Hippolytus*, 677-9, 690-1, 599-600, 720-1.

22) *Hippolytus*, 885-6, 945-6, 957-959.

23) *Hippolytus*, 995, 1009, 1025.

24) “어떤 맹세가, 어떤 말이 이 편지보다 더 믿을 수 있으며 내가 옳다고 하겠느냐? …… 젊은 남자들은 큐프리스가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날에는 여자들 보다

에우리피데스는 페드라라는 여주인공을 통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해 애태우는 인간 내부의 끓어오르는 열정과 이런 열정이 증오로 변하는 과정, 그리고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행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묘사는 인간이 갖고 있는 내면의 감정을 여성도 갖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인간의 참된 모습을 탐구하는데 그 주안점을 두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엘렉트라』

기원전 413년에 상연된 『엘렉트라』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여성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여기서 엘렉트라가 아버지를 살해한 아이기스토스(Aegisthus)와 어머니를 증오하여 복수하기로 결심한 배경을 간략히 살펴본다면, 엘렉트라의 아버지인 아가멤논(Agamemnon)왕은 트로이(Troy)전쟁이 끝나서 무사히 고향으로 귀환하였다. 그러나 그의 아내 클뤼타이메스트라(Clytemnestra)와 정부인 아이기스토스의 계략에 빠져 무참히 살해되었다. 결국 엘렉트라의 동생인 오레스테스(Orestes)는 죽음을 면해 망명하고 엘렉트라 자신은 가난한 농부에게 시집을 가야 했다.²⁵⁾ 엘렉트라는 공주의 신분에서 비천한 농부의 아내로 전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해 있는 현실에 의연히 대처하여 복수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이다. 즉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한없이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생의 망설임에 용기를 북돋아 아버지를 죽인 자에게 복수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살인자에게 벌을 주고 어머니의 간통의 죄를 씻게 해 줄 수 있겠는가?”²⁶⁾ 라고 오레스테스가 묻자 엘렉트라는 “너는 사내 대장부답게 아이기스토스를 죽여야 한다. 어머니 일은 내가 맡아서 계략을 짜도록 하지.”²⁷⁾ 라는 대화에서 엘렉트라는 남동생을 부추겨 아이기스토스와 어머니를 살해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결국 오레스테스는 누나의 사주를 받아 아

더 믿을 수 없지. 남자라는 명분이 변명하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어쨌든 이 죽음이 증인으로 남아있는 한 너는 이곳에서 추방되어야 한다.”(Hippolytus, 960, 970-974.)

25) *Electra*, 10-20, 30-40.

26) *Electra*, 599-600.

27) *Electra*, 685, 648.

이가스토스를 살해 하였다. 그러나 다음 인용문에서 보면 어머니마저도 죽여야 한다는 사실에는 망설임을 보이고 있다.

나를 낳고 길러 주신 어머니를 내손으로 어떻게 죽인 단 말인가.
 …… 자식이 아버지를 죽여서는 안되는 데. …… 어머니를 죽인 죄는
 벌받지 않는가?²⁸⁾

이에 엘렉트라라는 “너는 아버님의 원수를 갚을 따름이야. 어머니가 남편의 살해에 정당성을 부여하듯이 우리의 경우도 또한 정당한 것이다.”²⁹⁾라는 말로 동생의 주저함을 일축해 버렸다. 이런 대화에서 에우리피데스는 엘렉트라를 남동생 오레스테스보다 대단히 강한 성격 소유자로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러한 행동의 묘사는 타인에 의해 부추겨진 것이 아니라 엘렉트라 스스로의 의지로 판단하고 결정하였음을 나타내 준다. 그러므로 에우리피데스는 엘렉트라를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여성으로 묘사하고 싶었으며, 더욱이 유약한 여성보다는 강인한 여성의 모습으로 부각시키고 싶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우리피데스의 비극 속에서는 진보적 여성을 주제로 삼는 동시에 비극의 히로인들을 남성적 전통에 대항하는 모습으로 묘사하였던 것이다. 결국 에우리피데스는 인간 본성의 분출을 비극의 히로인들의 성격을 통해 메시지로 전하고 싶었던 것이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소포클레스 및 에우리피데스의 비극 속의 여주인공들의 - 안티고네, 메디아, 파이dra, 엘렉트라를 중심으로 - 행위와 언어 그리고 삶을 통해 자유의지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강인함과 적극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살펴 보았다.

고대 그리스 인들은 폴리스 우위 사상을 갖고 있다. 그들은 폴리스의 가장 작은 단위인 오이코스의 존속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28) *Electra*, 969-980.

29) *Electra*, 975, 1098.

폴리스 우위 사상을 갖고 있는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사회적 관습과 법률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극 작품 속의 여주인공들의 모습은 용감하게 남성과 맞서서 행동하고 남성적 사고로서 사회적 규범에 저항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비극작가들은 여성을 주제로 삼거나 주인공으로 두었으며, 주로 여성과 남성 간의 문제를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비극의 히로인들을 진취적이고 강인한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이 비극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당시의 진보적 사상을 받아들인 소포클레스와 에우리피데스는 비극의 히로인들의 성격을 통해 한 여성으로서 인간 본성의 분출을 메세지로 전하고 싶었던 것이다. 즉 남성과 사회에 저항하면서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인간임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다.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에서 안티고네가 죽음을 무릎쓰고 크레온의 명령을 거부한 것은 남성위주의 폴리스에 대한 대항으로 어떠한 재난에도 굽힐 줄 모르는 굳은 의지를 시종일관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강인하고 자신감있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결국 『안티고네』는 국가법에 대항한 자연법의 승리로 볼 수 있다.

에우리피데스의 『메디아』에서는 여주인공 메디아를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대담무쌍하고 영웅적 성격을 지닌 여성으로 등장시켰다. 크레온 왕과의 논쟁이나, 또한 야손과의 논쟁은 남성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대등함을 나타내고 있다. 메디아는 야손의 배신을 용서 할 수 없었다. 사랑과 복수간의 갈등 속에 아버지와 자식관계를 자극하여 자식 살해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야손을 파멸시켰던 것이다. 이와같이 자신의 아이들까지 죽이는 비정한 모습은 배신자의 출세길을 막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두 아들을 살해함으로써 父情의 아픔을 가중시키려는 데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야손을 무자식 상태로 만들어서 그의 오이코스를 파멸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에우리피데스는 메디아인 여성으로 하여금 사회적인 규범과의 충돌을 묘사함으로써 실제 삶 속에서 여성들이 할 수 없는 행동을 대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메디아』 劇 속에는 사회성을 띠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히폴리투스』에서는 파이드라를 열정적인 여성으로 그리고 異性 간의 충돌로 묘사하고 있으며, 『엘렉트라』에서는 엘렉트라를 남성보다 강한 성격으로 그리고 있다. 따라서 에우리피데스의 비극 속의 여주인공들은 인간 내면에 숨쉬는 격정 및 인간이 품고있는 가장 원초적 감정을 - 사랑, 질투, 미움, 증오, 분노, 복수 - 지닌 모습으로 부각된다.

한편 에우리피데스가 그린 여성의 복수과정이 특히 잔인했던 것은 정당한 방법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는 여성들에 대한 연민의 정 때문이었을 지도 모른다. 이런 연민 때문에 에우리피데스를 여성 혐오자로 볼 수 있다. 특히 아리스토파네스는 그의 작품을 통해 에우리피데스를 비방하고 싫어하였다. 하지만 에우리피데스는 비극 속의 여주인공들을 통해 사회와 제도, 인습을 신랄하게 비판하고자 하였다. 에우리피데스는 그의 비극 속의 여성들의 성격을 남성에게 저항하고 사회에 투쟁하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에우리피데스는 여성에 대해 반감을 가진 것이 아니라 활기에 차고 진취적이며 지적인 여성을 묘사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런 점으로 보아 에우리피데스는 결코 여성 혐오자라고 말할 수 없다.

궁극적으로 비극 작가들의 메시지는 여성 주인공을 통해서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표출하려 했으며, 남성 지배하에서 받는 피해에 대해 불만과 복수심을 불러 일으키는 동시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적극성을 묘사하고자 하였다. 또한 타인의 뜻이 아니라 여성 스스로의 의지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강인성을 그리고 있다. 결국 소포클레스와 에우리피데스의 비극 속의 여주인공들은 자신의 처한 상황에 순응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명히 대처하려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참고문헌

- Euripides, *Medea*, The Loeb Classical Library
 _____, *Electra*, The Loeb Classical Library
 _____, *Hippolytus*, The Loeb Classical Library
 Sophokles, *Antigone*, The Loeb Classical Library.
 Bates, W. N., *Euripides : A Student of Human Nature*. N.Y., 1930.

- Foley, Helen P., "The Conception of Women in Athenian Drama," In *Reflections of Women in Antiquity*, Gordon and Breach, 1981.
- Gomme, A. W. "The Position of Women in Athens in the Fifth and Fourth Centuries B. C.," *The Classical Philology*, Vol. 20, 1925, reprinted in his *Essays in Greek history and Literature*, Oxford, 1937.
- Harsh, P.W., *A Handbook of Classical Drama*, Stanford Univ. Press, 1944.
- Humphreys, S. C., *The Family, Women and Death*, Routledge, 1983.
- Just, R., *Women in Athenian Law and Life*, Routledge, 1989.
- Kitto, *The Greek*, Penguin Books, 1991.
- March, J., "Euripides the Misogynist?," Edited by Powell, A., *Euripides, Women, and Sexuality*, Routledge, 1990.
- Murray, G., *Euripides and His Age*, Oxford, 1955.
- Pomeroy, S. B., *Goddesses, Whores, Wives, and Slaves*, New York, 1975.
- Richter, D. C., "The Position of women, in Athens", *The Classical Journal*, Vol. 67, 1971.
- Seltman, C., *Women in Antiquity*, New York, 1962.
- Slater, P. E., *The Glory of Hera : Greek Mythology and the Greek Family*, Princeton Univ. Press, 1968.
- 김진경, 『그리스 문화사』, 탐구당, 1984.
- _____, 『그리스 비극과 민주정치』, 일조각, 1991.
- 백경옥, "소포클레스 비극의 여주인공들", 정만득 교수 정년기념 논총, 경북대, 1998.